

구원받은 사람도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시51:1-14

지난주 이메일, 요일1:6-10

1.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죄는 구원받기 전의 죄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후의 죄인가요?
2. 9절에서 '자백한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후의 자범죄들을 자백한다는 것일까요?
3. 이요한 계열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성경말씀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목사가 대답해야 할 문제, 또 2023년도 초반부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 >,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 죄의 자백, 회개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의 의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다.

그 원수의 이름은 죄이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죄에 대해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말한다. 여기에는 '말한다', '걷는다'는 두 단어가 나온다(6절), 그리스도인의 언행을 말한다.

신약성경,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걷는다고 말한다(갈5:25).

구원받은 뒤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성도가 만나는 원수가 바로 죄이다.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들, 죄 문제가 힘들다.

새로운 출생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다.

요한일서의 죄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것이다. 6절

성도들의 딜레마: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엡1:3, 4, 7, 골2:13-14, 요19:30

히10:11-18

시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단번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런데 왜 자백이 필요한가? 요일1:9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죄, 용서에 대해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한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법적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관계는 불변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와 자녀들을 보라. 내 아들딸이다.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지거나 원활하지 못하다.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1:3에 교제라는 말이 나온다. 6절,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지거나 원활하지 않게 된다.

유일한 해결책: 아들이 죄를 자백하고(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우리의 교제를 막았던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구원파의 문제:

개역성경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여기, 죄가 아니라 죄들이다. 이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의 우리는 요한을 포함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들을 자백해야 교제 회복이 된다.

이런 자백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한다.

우리가 범한 일들에 대한 깊은 뉘우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계시록 2-3장, 일곱 교회, 2:16-17, 3:3, 3:19

구원받은 교회도, 성도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행11:18)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가 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천박한 가르침이다.

시편51편은 이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준다.

예배드릴 때의 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

1. 하나님 앞에 나오니 기쁘다. 2. 죄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

그래서 비관적인 나와 낙관적인 나가 예배 시간에 드러나야 한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러나야 한다.

오늘, 앞으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시편51편 배경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30세 정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승승장구하는 삶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기, 예배하기 위해 많은 시편

성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하는 사람들,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예물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대다수 남자들의 문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두었다. 당시 대다수 왕들이 그렇게 함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 남자, 한 여자, 평생 해로
오늘의 문제를 남자들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자기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마귀가 여기를 집중 공략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하11장: 요압을 포함한 그의 신하들이 암몬 족속의 땅을 치러 갔을 때 왕국에서 거닐다가 저녁때에
목욕하고 있는 밋세바를 보게 됨

밋세바에게도 죄가 있다. 왕국에서 내려다보면 뻗히 집이 보인다. 여기서 해질 때에 목욕을 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잘되자 마음에 정욕과 음욕이 싹터 올랐다.

밋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 헛 족속 우리야

밋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자 우리야를 불러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우리야의 충정으로 실패함

요압에게 명령하여 그를 최전방에 두고 적들이 몰려나오면 그를 홀로 두고 도망하라고 함

그대로 실행이 되어 우리야는 적군에게 맞아 죽음

이쯤 되자 말 그대로 다윗은 숨을 쉬기도 어려울 만큼 생활하기가 힘들어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됨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됨

사도 바울 롬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

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이런 심정

12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8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교제가 끊어진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죄들의 고백과 회개이다.

이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죄,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밤새 울고 기도하면 모든 죄가 스쳐 지나간다. 다 고백해야 한다. 마귀의 거짓 가르침 너무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있다(히12:1).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드리러 나가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면 이 문제를 다윗처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요일 1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1-7)

1절: 내 죄들, 범법들은 내 힘으로 지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2절: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신부, 고해성사, 다른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 No!

3절: 내가 시인한다. 이것이 요일1:9가 말하는 자백이다.

4절: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옳으십니다.

5절: 인간의 상태,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6절: 진실을 원하신다. 그래서 자백과 인정이 필요하다.

7절: 우슬초, 어린양의 피를 뿌릴 때 쓰이던 식물(출12:22, 레위기의 정결례)

나를 회복하소서(8-12)

8절: 뼈들이 꺾일 정도의 비통함. 시32:3-4

9절: 주께서 내 죄대로 내게 갚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의 구조를 보시고 용서하소서(시103:14).

10절: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인정과 자백과 회개로 인해 가능하다.

11절: 주의 거룩한 영,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다. 거룩한 영

12절: 구원의 기쁨, 자유로운 영, free, 아낌없이 거저 주는 영, 나를 유지해 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13-19)

13절: 선한 간증의 삶을 살겠다. 공개적으로 죄를 ○니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겠다.

14-15절: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16-17절: 물질이나 희생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사66:2),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18절: 자기로 인한 국가의 패망 걱정, 성전 건축(삼하7장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19절: 죄들의 용서 이후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죄의 결과

신구약성경,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짓는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본인이 당한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의 반역, 가정의 불화

2023년, 구원받은 성도: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